

NEAR사무국, 홍보대사에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위촉(7.1)
관련 언론보도 스크랩

2020.07.01.(수)

번호	구분	매체명	제목	비고
1	신문	문화일보	동북아연합 사무국,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'홍보대사' 위촉	
2	신문	대경일보	동북아연합 사무국,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'홍보대사' 위촉	

문화일보 사회

기사 게재 일자 : 2020년 07월 01일

동북아연합 사무국,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‘홍보대사’ 위촉

박천학기자 kobbla@munhwa.com

김경호(사진)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(NEAR) 사무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.

NEAR는 경북 포항에 있는 사무국에서 김옥채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내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.

김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수년 동안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대구시 의료 관광산업 자문 대사,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고려문화협회 명예 고문 등을 맡고 있다.

NEAR는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·협력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 협력기구로 1996년 9월 창설됐다. 한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, 몽골, 북한 등 6개 국가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. 상설 사무국은 2005년 포항에 설립됐으며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가·분야별 전문위원과 북한을 제외한 5개 국가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업무를 해당 국가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.

포항=박천학 기자



Copyright © 문화일보. All Rights Reserved.

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(NEAR) 사무국, 홍보대사에 김경호 전 주러시아 공사 위촉

✎ 권수진 기자 | ⓒ 승인 2020.06.30 18:08



▲ 김경호 홍보대사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관계자들이 홍보대사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(NEAR) 사무국은 지난달 30일 연합 사무국에서 김경호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를 사무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.

김경호 홍보대사는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다년간 고위외교관으로 근무한 지역전문가로 현재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산업 자문대사, 우즈베키스탄 내 각 산하 고려문화협회 명예고문 등을 맡고 있다.

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은, 김 대사의 경력과 풍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 동북아연합 사무국에 대한 국제정세

자문 및 러시아 지역 담당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
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이다. 1996년 9월에 창설된 이래 중국, 일본, 한국, 러시아, 몽골, 북한 등 6개국 78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. 경상북도가 유치한 상설 사무국은 2005년부터 포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, 사무총장 이하 국가별, 분야별 전문위원과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지자체 파견 공무원이 팀을 이뤄 회원단체 간 국제교류 업무를 해당 국가 언어로 지원하고 있다.

권수진 기자 5369k@naver.com

저작권자 ©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